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 혁신·통폐합 시동

공사·공단 등 24곳 조직 진단
기능 중복·방만운영 기관 퇴출
비리·감사 받은 기관들 '술렁'

대중교통공사·성평등환류센터
새 기관 설립 사전 작업 관측도

광주시가 산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의 경영성과 보고회를 직접 챙기고, '광주 혁신추진위원회'도 중복·유사기관 통폐합을 광주시에 권고하는 혁신안을 내놓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던 일부 공공기관 혁신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 '낙하산 인사'의 단골 일자리로 전락했던 일부 공공기관의 인적 쇄신 요구도 커지고 있어 술렁 비리 등으로 광주시의회의 지적과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기관을 중심으로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또한 이용섭 시장이 당선자 신분이었던 지난해 대중교통운영공사와 성평등환류센터 설립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으로 "기능이 중복되는 공사·공단 출연기관을 일부 조정할 뒤 새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광주 시도 조만간 관련 영역을 통해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할 계획이다.

21일 이용섭 시장은 김대중컨벤션센터를 찾아 2019년 성과창출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회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는 경영성과와 창출 계획서를 통해 '10·10·10' 성과 달성으로 자립경영 기반구축,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2전시장 건립 및 민자 유치 등을 발표했다. '10·10·10' 캠페인은 매출 10% 성장, 손실 폭 10% 축소, 관리비용 10% 절감 등을 통해 자립경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도 구체적인 경영성과 창출 계획서가 발표되는 등 이날 성과보고회가 사실상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자생력을 확



겨울방학 학교 교실... 방진복 입고 석면자재 철거

21일 오전 광주 북구 일곡중학교 교실에서 방진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교실 내 천정에 있는 석면자재를 철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겨울방학 기간동안 관내 초등학교 8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10개교 등 26개교에서 석면철거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하는 자리가 됐다.

광주시는 또 오는 30일 광주도시공사를 두 번째로 방문하는 등 오는 2월까지 공공기관 성과창출 계획 보고회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용섭 시장 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산하 공공기관 혁신안에도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통폐합이 포함돼 있다. 이 혁신안에 따르면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의 책임 및 기능을 강

화하기 위해 조직 진단을 실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관·단체의 통폐합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혁신추진위는 올해 상반기 중 시와 공공기관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보고하도록 하고 이행 과정을 점검할 방침이다.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주정민 위원장은 이날 "문화·복지·환경 등 분야별로 나눠보면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는 것이 많다"면서 "광주시의 용역을 통해 어느 부분이 중복되고 어느 기관의 조정이 필요할 것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시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조언 등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개혁에 나선 것은 대다수 공사·공단 출연기관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고 채용비리와 근무 태만 등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시

에는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등 공사·공단 4개, 수완에너지(주) 등 출자기관 2개, 광주디자인센터와 광주여성재단 등 출연기관 18개 등 모두 24개의 공공기관이 있다. 하지만 이들 기관 중 직원 수가 단 9명에 자본금이 50억원에 불과한 기관도 있고, 일부 기관은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기관장들은 7000만~1억2000만원의 고액 연봉을 챙기고 있어 그동안 통폐합 논의가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인수위격이었던 광주혁신위원회는 새로운 공공기관을 만드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광주시와 자치구, 도시철도공사, 도시공사 등으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인 교통분야의 통합을 위해 '대중교통운영공사'와 '성평등환류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檢, 손혜원 의혹 수사 착수

직권남용·비밀누설 의혹... SBS 고발 땀 병합수사 검토
박지원 "투기의 아이콘"·손혜원 "배신의 아이콘" 설전

손혜원 의원의 직권 남용 및 비밀누설 등 의혹이 결국 검찰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관련기사 3, 6면〉
검찰은 "현재 남부지검에 접수된 고발장은 1개지만, 다른 검찰청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고발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 의원 역시 SBS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추이를 지켜보고 관련된 여러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부지검은 같은 시민단체가 서영교 의원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1부에 배당했다.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에서 근무하던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의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부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이날에도 정치권은 손 의원의 의혹 공방으로 열목졌다. 야당은 손 의원을 향해 공세를 강화하며 특별검사와 국정조사 카드로 여당을 압박했으나 민주당은 손 의

원이 탈당한 만큼 무대응 전략으로 맞섰다.

또 손 의원과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도 거친 설전을 주고 받았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손 의원에 대해 "투기의 아이콘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언론이(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 부동산이) 9곳이라고 했을 때까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투기라 보지 않았다"면서 "그러나(사들인 부동산이) 30여채에 가까워진다면 국민은 투기라고 생각하지, 선의로 생각하겠나"고 주장했다. 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에 대해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경우 아무리 구입 금액이 좋아도 과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며 "상당 부분 불법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박 의원을 겨냥, "강 건너에 아파트 하나 소지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어릴 감히 대선의원이며 대통령 비서실장에 장관까지 임명, 일생을 통해 불세출 배신의 신공을 보여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과 견주겠습니까?"라고 말했다.

/박지영 기자 jkpark@연합뉴스

"광주형일자리 성사... 화합·상생의 경제 모델 돼야"

손학규 대표 광주서 '손다방'

광주를 찾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손혜원 의원이 대통령 측근이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른다"고 말했다. 또 '광주형일자리' 성사와 전국 확대도 촉구했다.

〈관련기사 4면〉
손 대표는 이날 동구 충장로에서 푸드트럭 '손다방'을 열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국회가 허수아비가 됐다"며 "손 의원이 잘못해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데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왜 동행하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촛불혁명으로 정권은 교체됐으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있다"며 "대통령 주변 실세들 위력이 패권주의를 형성했고 그 표본이 바로 손혜원"이라고 비판했

다. 또 "국회 제1당인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측근 실세가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회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화합·상생의 경제 모델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5·18민주정신으로 빛나던 광주가 이제 한편으로는 광주형일자리로 기억되고 있다"면서 "과거 노동운동과 빈민운동을 했었지만 이제는 노동과 노동조합도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경제 화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전라도 천년의魂 - 임진왜란 과학자 ▶18면
손흥민·황의조 바레인전 쌍포 출격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HNT 하나투어

초특가 한정세일!

무안*캄보디아 앙코르왓 여행

2월 6일(수), 9일(토), 13일(수) 출발!

하나팩

ARPF01 캄보디아/앙코르왓 4일,5일

69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 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유적지 관광, 압살라 민속소 디너뷔페, 특특이 탐승

※선착순 좌석 마감됩니다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조항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해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도착비지) 도착비지를 필요로 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도착비지요금은 상품가에 불포함입니다.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택시(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청진/불편장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앱에서 확인하세요.

리전등권거래소 상장기업 |